

중세 문헌에 드러난 언어인식과 국어교육의 전사(前史)

— 영·정조 실록과 《사소절》을 중심으로

조희정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이 논문은 2012년 12월 1일 국어교육학회 제52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논의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정토론자 정재찬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 이 논문은 2012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서론
- II. 영·정조 실록에 드러난 '언어' 인식
- III. 《사소절》에 드러난 '언어' 교육 인식
-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중세의 문헌¹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중세 사회 속 '언어인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언어인식'을 기준으로 삼아 중세의 문헌을 검토하기에 앞서 중세의 문헌 자료와 '언어인식'이라는 개념은 화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학회 측에서 이번 기획 발표의 핵심어로 삼은 '언어인식'은 영국에서 처음 제안된 'Language Awareness'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언어 학습, 언어 교수 그리고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및 감수성'(남가영, 2003: 2; 김은성, 2005a: 433-449 참조)을 의미하며, 나아가 '언어가 광범위한 구어·문어 텍스트에서 사회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실천을 드러내고 감추는 양상을 읽어 내는'(Carter, R., 김은성, 2005b: 325

1 중세에 대한 시기 구분은 늘 논란거리이며 국어학 연구와 국문학 연구에서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자료를 중세의 문헌으로 설정한다.

에서 재인용) ‘비판적 언어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을 포함하고 있다(Fairclough, N(ed.), 1992:12-17 참조).

문제는 ‘이상의 ‘언어인식’이 중세의 문헌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개념인가?’ 하는 점이다. 중세의 문헌에 ‘언어인식’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할 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은 ‘언어인식’에서 말하는 ‘언어’와 중세의 ‘언어’가 선명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의 언어교육에서 제안된 ‘언어인식’이란 모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교육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무엇보다도 해당 언어의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우리 국어교육학계에서 가장 먼저 ‘언어인식’에 관심을 가진 분야가 문법교육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언어인식’에서 주목하는 ‘언어’란 모국어이든 제2언어이든 상관없이 언어 체계 전체를 하나로 포괄하여 학문적 바탕으로 삼아 탐구하는 의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언어인식 내에서 한 사회의 구어와 문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언어로 통합된 채 다루어질 것이며,² 언어인식이란 포괄적 단위의 언어 전체 체계를 상정한 바탕 위에서 거론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우리의 중세 언어 체계는 근대 이후와 같이 통합된 실체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곤란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중세 언어 체계는 삼중의 체계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구어와 문어, 그리고 문어는 진문(眞文)에 해당하는 한문(漢文)과 1443년 완성되어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 즉 언문(諺文)으로 구분해야 한다. 중세 사회에서 구어와 한문, 언문은 동일한 언어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언어가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핵심 성별·신분과 계급, 언어를 대하는 태도 등이 달랐다.³ 그렇기에 중세 사회에서 구어와 한문, 언문을 통합한

2 언문일치가 구어와 문어의 실제적 동일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차원의 동일성을 가정하는 것이며, 언문일치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구어도 문어도 아닌 인공언어라는 점은 권보드래(2000:131-177) 참조.

3 가령 조선 전기 국문 글쓰기는 궁중의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경하(2003) 참조.

언어 전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언어 학습, 언어 교수 그리고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및 감수성’ 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중세 문헌 속 언어인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구어, 한문, 언문을 각각 분리하여 중세 사회의 구어에 대한 언어인식, 한문에 대한 언어인식, 언문에 대한 언어인식을 검토하는 접근이 가능할 터이다. 이 경우 언문에 대한 언어인식은 국어학과 국문학 연구를 통해, 한문에 대한 언어인식은 한문학과 국문학 연구를 통해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연구자들이 축적된 상태이다.⁴ 이와 비교할 때 중세 사회에서 구어에 대한 언어인식 관련 연구⁵는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세 사회에서 ‘문어’에 대한 관심보다 ‘구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측면에서 비롯하는 바가 클 것이다.

결국 중세의 문헌을 대상으로 언어인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기의 방대한 문헌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연구 방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서 거론한 것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당시의 구어, 한문, 언문과 같은 체계 속에서 ‘언어인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문헌 속에서 ‘언어’라는 단어 자체가 지시하고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이다. 예컨대 중세의 문헌 속에 등장하는 단어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환기하는 의미 영역은 근대적 개념의 ‘언어’와 다소 차이를 보

4 관련 분야 연구사는 지나치게 방대하여 본 논문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의 시도한 ‘문체만정’ 정책과 관련 논쟁들은 앞서 제시한 ‘비판적 언어인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터이지만, 굳이 ‘비판적 언어인식’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한문 산문의 문체와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상관성을 검토하고 있다(허남욱, 1995; 윤재민, 2002; 박혜진, 2006; 강혜선, 2012 등 참조).

5 《논어》를 자료로 삼아 언어인식(혹은 언어의식)을 살핀 선행 연구들(이을환, 1975; 임영관, 1993; 김성수, 2009)이 있다. 가장 최근 연구인 김성수(2009)에서는 ‘언어인식’을 ‘언어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로 개념화하여 《논어》에 드러나는 언어인식을 ‘소극적’, ‘가치적’, ‘회용적’ 언어인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일 것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중세 문헌 속에서 ‘언어’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중세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추출되는 결과는 중세의 단어 ‘언어’가 지시하고 내포했던 의미 영역을 추적한다는 의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 자료는 1차적으로 조선왕조실록으로 한정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이 중세 공적 담론의 충실한 기록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로부터 추출된 언어인식은 특정인의 언어인식으로 한정되지 않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언어’라는 표지가 드러나는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여 중세의 ‘언어’가 지시했던 의미망을 재구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및 감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내 ‘언어’ 표지의 쓰임과 맥락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조선 후기 규범서를 통해 제시된 ‘언어’ 교육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이렇게 검토한 언어인식들은 중세 국어교육의 관점이나 내용으로 곧바로 치환되지 않는다. ‘국어’(이연숙, 2006 참조)와 ‘국어교육’(졸고, 2003: 433-437 참조)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보편타당한 개념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역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중세의 언어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국어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근대 국어교육이 형성되기 이전의 전사(前史)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어교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외연의 확대 가능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II. 영·정조 실록 속 ‘언어’ 인식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검토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 혹은 ‘言語’를

검색어로 삼아 추출된 조선왕조실록⁶의 자료 중 시기별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표본을 검토한 결과,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어교육이 시행된 근대와 상대적으로 근접한 시기인 조선 후기 중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와 정조(1752-1800, 재위 1777-1800) 실록을 중심 자료로 삼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다음 장에서 살필 규범서⁷인 《사소절》이 집필되고 유통된 때이기도 하다.

1. ‘언어’는 구어(口語)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언어’로 지시된 대상⁸은 1차적으로 ‘말’, 즉 구어(口語)를 가리킨다.⁹ 이는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자료에 등장하는 ‘언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바를 살필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음 자료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실록 속에 등장하는 단어 ‘언어(言語)’의 용례를 보여 준다.

[1] 조회를 받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시강관(侍講官) 설순(雪循)에게 묻기를, “너의 선조가 중국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 살았으며, 어느 때에 벼슬하였느냐.”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의 선조가 서번(西蕃) 회골(回骨) 땅에 살았사오며, 원(元)나라 태조(太祖) 때에 비로소 벼슬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

6 이하에서 인용하는 실록 자료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을 출처로 한다.

7 전통사회의 언어 행동의 원칙이 제시된 규범서로는 《사소절(士小節)》, 《해동소학(海東小學)》, 《소학(小學)》, 《격몽요결(擊蒙要訣)》, 《필어(筆語)》, 《명심보감(明心寶鑑)》, 《내훈(內訓)》 등이 있다. 류점숙(1999: 85) 참조.

8 실록 속 ‘언어’와 현대의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에 실록 속 ‘구어’를 지시하는 ‘언어’는 이하에서 ‘언어’로 표시한다.

9 이러한 특징은 《논어》에서 언어인식(혹은 의식)을 살핀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구어’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

를, “너의 숙부(叔父)는 나이 몇 살 때에 여기에 왔으며, 우리나라의 언어를 알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숙부 장수(長壽)는 나이 19세에, 미수(眉壽)는 나이 17세에 여기에 왔사오며, 언어는 대강 알고 있었습시다.” 하였다.(丁亥/受朝, 經筵° 上問於侍講官僕循曰: “爾祖先在中國時, 居何處, 仕於何代?” 循對曰: “臣之祖先, 居西蕃回骨之地, 始仕於元太祖之世°” 上問: “爾叔父年幾歲時來此? 知我國言語乎?” 對曰: “臣叔父長壽年十九, 眉壽十七來此° 言語亦粗知之”¹⁰)

설순(楔循, ?-1435)은 위구르 사람으로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고려로 귀화한 설순(楔遜, ?-1369)의 후손(조동일, 2005: 240-242 참조)이다. 자료 [1]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세종과 설순이 나누는 대화인데 ‘우리의 문자’가 만들어져 반포되기 이전이라는 시점을 감안할 때, 위 대화에서 거론된 우리나라의 언어란 ‘우리말’을 가리킨다.

‘언어’로 지시된 대상이 ‘말’을 가리킨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우리말뿐 아니라 외국어를 포함한 모든 구어로 확장된다. 특히 사역원 혹은 통역과 관련된 맥락에 등장하는 ‘언어’는 ‘중국어’, ‘몽고어’ 등의 외국어를 의미한다.

[2]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 설장수(楔長壽) 등이 글월을 올려서 말하였다. “신 등은 그우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인재를 근본으로 삼고, 인재를 교양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곧 정치의 요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겨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습시다. 그 까닭에 전하께서 국가를 창건할 당초부터 특히 본원을 설치하고 녹관(祿官)과 교관을 두어 생도를 가르치고,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음과 뜻이며 글 짓는 법식까지 익히게 하여”(司譯院提調僕長壽等上書言 臣等竊聞, 治國以人才爲本, 而人才以教養爲先, 故學校之設, 乃爲政之要也° 我國家世事中國, 言語文字, 不可不習° 是

10 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월 16일(정해) 1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시강관 설순과 문답하다.

以殿下肇國之初,特設本院,置祿官及教官,教授生徒,俾習中國言語音訓文字體式)¹¹

자료 [1]과 [2]는 조선 전기 세종과 태조 때 자료인데, 이러한 관점은 ‘언어’ 혹은 ‘言語’를 검색어로 삼아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서 선별한 자료¹²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료 [1], [2]에서는 단어 ‘언어’ 앞의 ‘우리나라’[我國], ‘중국’ 등을 통해 어느 나라의 말인지를 한정짓고 있지만, 자료 [3]과 같이 문맥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 [3]에서는 통역관이 몽고의 글을 읽을지라도 몽고 사람들과 면대면 의사소통은 하지 못 하는 상황을 거론하고 있는바, 이때 ‘언어’란 ‘몽고어’를 가리킨다.

[3] 통역관이 몽고의 글을 읽어 익힌 자도 몽고 사람을 만나면 전혀 언어가 통하지 못합니다.(故譯舌之誦習蒙書者, 遇蒙人, 全不通言語)¹³

[4] 우리나라의 어음(語音)은 가장 중국의 것에 가까웠었는데, 신라와 고려 이래에 이미 변해(翻解)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매양 통습(通習)하는 어려움이 격정 거리었습니다. 오직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睿智)로 혼자서 신기(神機)를 운용(運用)하여 창조(創造)하신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화인(華人)들에게

11 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1월 19일(을묘) 3번째 기사 사역원 제 조 설장수가 사역원의 시험 자격과 선발 액수 등에 대해 올린 글.

12 ‘언어’로 검색하면 국역 자료는 영조 69건, 정조 45건, 원문 자료는 영조 289건, 정조 229건이 확인된다. 원문 자료가 많은 이유는 ‘言於’ 등 ‘언어’의 음가를 지닌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며 국역 자료의 경우 ‘言語’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語言’이 등장하는 맥락도 있다. ‘言語’로 검색하면 국역 자료는 영조 28건, 정조 11건, 원문 자료는 97건, 정조 78건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홈페이지상의 검색어 시스템의 문제로 원문 자료에서 잡아낸 경우를 국역 자료에서 포함시키지 못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언어’가 포함된 자료의 총량을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양적 접근이 중세의 ‘언어인식’을 고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예상할 수 없다.

13 영조 44권, 13년(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5월 14일(신축) 2번째 기사 김재로가 몽학 충민청 설치를 주장하고 이현필 사건을 언급하다. 장령 민원이 인피하다.

물어 보더라도 곡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릇 사방의 언어(言語)와 갖가지 구멍에 나오는 소리들을 모두 붓끝으로 그려 낼 수 있게 되는데, 비록 길거리의 아이들이나 향간의 아낙네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능히 통하여 알게 될 수 있는 것이니, 개물 성무(開物成務)한 공로는 전대(前代)의 성인들도 밝혀 내지 못한 것을 밝혀 낸 것으로써 천지의 조화(造化)와 서로 가지런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我國之音, 最近於中國[○] 而羅麗以來, 既無翻解之方, 每患通習之難[○] 惟我世宗大王, 睿智出天, 獨運神機, 創造訓民正音, 質諸華人, 曲盡微妙[○] 凡四方之言語萬竅之聲籟, 皆可形容於筆端, 雖街童巷婦, 亦能通曉, 開物成務之功, 可謂發前聖之未發, 而參天地之造化矣)¹⁴

자료 [4]에서는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이 사방의 언어와 모든 소리를 모두 기록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방의 ‘언어’란 모든 나라의 ‘말’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각 나라의 ‘말’, 즉 구어를 의미하는 단어 ‘언어’는 언어의 체계나 언어의 이념태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지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영정조 실록 속 ‘언어’에 대한 언급은 실생활 속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된 말의 비속성이나 잘못 등을 문제 삼기도 한다. 자료 [5]는 세자를 모시는 보모와 유모가 친근하여 그들의 언어가 비속한 경우를, 자료 [6]은 사역원 생도들의 중국어 발음을 문제 삼는 경우이다.

[5] 언어가 혹 비속하거든(言語或涉鄙俚)¹⁵

[6] 저들(사역원의 생도들)의 언어가 모두 잘못된 것을 답습하더라도 책자와 간행(刊行)만큼은 의당 정음(正音)을 취해야 할 것인데.(假令彼人言語, 一皆襲謬, 若

14 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7월 18일(정미) 2번째 기사 수레·벽들의 사용, 당나귀·양의 목축 등 중국의 문물에 대한 홍양호의 상소문.

15 정조 17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월 23일(기유) 2번째 기사 부제학 심풍지가 국정의 일을 상소하니 비답하다.

其冊子刊行,宜取正音)¹⁶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록 내에 등장하는 단어 ‘언어’는 일상생활 속 ‘말’을 포함한 ‘구어’를 가리킨다.¹⁷ 한편 ‘구어’를 지시하는 ‘언어’는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의미 계열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생활 속 구체적 ‘말’의 수준을 넘어, 구어에 대한 보다 추상적 의미로 확대되어 간다.

2. ‘언어’와 결합된 의미 계열체

실록 내에서는 ‘언어’와 자주 결합되는 단어들이 있어 일정한 의미 계열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언어’와 빈번하게 결합하는 단어들을 확인하면 ‘언어’가 소속된 의미망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언어’는 ‘문자’와 짝을 이루어 ‘언어-문자’의 계열체를 만들어낸다.

[7] 전하께서 그윽한 곳에 홀로 계시는 중에서도 항상 상제(上帝)를 대한 듯이 하셨으나, 언어(言語)와 문자(文字)를 발표하실 적에(殿下於屋漏幽獨之中, 常若對越上帝, 發於言語文字者)¹⁸

16 정조 9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4월 19일(정묘) 1번째 기사 동지 부사 홍겸이 역관이 《홍무정운》과는 다른 음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뢰다.

17 물론 실록에서 ‘말’은 ‘언(言)’으로 지시되기도 하였다.(안으로는 학문·성정(誠正)의 공부와 밖으로는 언어·동작의 법도에서부터 정령(政令)·시조(施措)에 이르기까지(內而學問誠正之工, 外而言爲動止之則, 以至政令施措之間) 영조 88권, 32년(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7월 25일(경인) 1번째 기사 전 진선 윤봉구가 올린 정치·효행·수신 등에 대한 상서). 그러나 중세의 ‘말’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고자 한다면, 단어 ‘언어’ 이외에도 말을 지시하는 다른 용어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중세의 ‘말’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실록에 드러난 단어 ‘언어’의 용례와 사용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단어 ‘언어’로 지시되지 않은 구어 관련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18 영조 1권,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9월 16일(병진) 1번째 기사 천등과 번개의 이변과 관련해 승정원 등에서 치도에 있어 힘써야 할 것에 대해 아뢰.

[8] 목내선(睦來善)·이현일(李玄逸)이 죄를 얻은 것은 언어 문자(言語文字)의 실수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였는데(睦來善李玄逸之得罪, 不過坐言語文字之失)¹⁹

‘언어’는 ‘말’을 지시하며, ‘문자’는 ‘글’을 지시한다. ‘말’과 ‘글’의 한계를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9] 대개 그 충실한 광휘(光輝)의 아름다움은 언어나 문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다.(蓋其充實光輝之美, 有非言語文字所殫)²⁰

[10] 이덕사와 조재한의 흉악하고 음험한 계략이 역적 김하재가 말한 온갖 이야기들보다 심하여 언어나 문자로 모두 형용할 수 없다.(師翰輩凶謀陰計, 有甚於夏賊諸般之說, 不可以言語文字, 盡爲形言矣)²¹

흥미로운 것은 ‘언어와 문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 즉 오늘날 구어와 문어를 포괄하는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의 말과 글 전체를 포괄할 때에는 대부분 ‘언어 문자’를 동시적으로 거론하는바, 이러한 현상은 중세 사회에서 구어와 문어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어와 문어를 지시하는 ‘언어’와 ‘문자’는 의미가 확장되어 아래와 같이 ‘말하는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 혹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11] 영돈녕은 비록 언어와 문자에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 (領敦寧, 雖未必有言語

19 영조 2권,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1월 19일(기미) 4번째 기사 전 정언 나학천이 상소해 민폐와 시사를 논하다.

20 영조 87권, 32년(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2월 15일(계축) 1번째 기사 명정전에서 반포한 송시열·송준길을 중향하고 반포한 교문.

21 정조 22권, 10년(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7월 15일(병진) 2번째 기사 이동현의 상소에 대한 문제.

文字之長)²²

[12] 내가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대략 일찍이 언어(言語)와 문자(文字) 사이에 중사하였으므로, (予雖不學, 略嘗從事於言語文字之間)²³

둘째, ‘언어’와 짝을 이루어 제시되는 단어는 ‘행동’이다. 인간의 행동을 의미하는 바는 ‘움직임과 그침’의 의미를 지닌 ‘행지(行止)’, ‘동지(動止)’, ‘동작(動作)’, ‘거조(舉措)’, ‘거지(舉止)’, ‘동정(動靜)’ 등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언어-행동’의 계열체가 형성된다.

[13] 본청(本廳)의 부장(部長)이, 상인(喪人) 성탁(成琢)과 상한(常漢) 김옥성(金玉成)의 언어와 행동이 수상하기 때문에 붙잡아 왔는데(本廳部將, 以喪人成琢, 常漢金玉成, 言語行止殊常)²⁴

[14] 언어에는 조금하고 경망한 잘못이 없어서 절로 신중해지고 행동거지에는 경솔하고 갑작스러운 잘못이 없어서 절로 간결하고 엄숙해질 것입니다.(言語無躁妄之過, 而自至於慎重; 動止無輕遽之失, 而自至於簡嚴)²⁵

[15] 언어 동작의 사이(言語動作之間)²⁶

[16] 그의 거조와 언어에 실착(失錯)이 많았으므로(且其舉措言語多失錯)²⁷

[17] 그의 언어가 앞뒤를 뒤집어서 어그러지고 행동이 기괴하였으므로 사람들

22 정조 45권, 20년(1796 병진 / 청 순치(順治) 1년) 11월 24일(을축) 1번째 기사 신하들과 세자 책봉에 대해 논의하다.

23 정조 6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10월 4일(경신) 1번째 기사 한성 우윤 송덕상에게 벼슬에 나올 것을 권유하다.

24 영조 16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15일(을축) 1번째 기사 포도 대장 남태징이 성탁과 김옥성의 초사를 올리다.

25 영조 49권,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3월 11일(정사) 1번째 기사 경연의 관원 선택 등 치세의 잘못을 지적한 지평 유언협의 상소문.

26 정조 27권, 13년(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윤5월 22일(정미) 4번째 기사 균역법과 과거의 폐해·윤시동의 서용·균역의 폐해에 관한 장령 조성규의 상소.

27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7월 25일(정사) 1번째 기사 부산 왜관의 왜인이 솟을 날마다 주지 않는다고 관문을 나오니 부사 첨사를 벌하다.

이 모두 비웃었다.(言語顛錯, 舉止奇怪, 人嗤笑)²⁸

말과 행동거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단서 두 가지이다. 말과 행동을 포함하여 차림새, 용모 등이 중세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주목한 요소²⁹이다.

앞서 살핀 두 가지 계열체는 의미가 뒤섞이면서 ‘언어/문자-(실행)’의 새로운 계열체로 확장된다. 즉, ‘언어-문자’ 계열체가 ‘인간의 언어 행위’ 전반을 지시하는 ‘언어/문자’의 범주로 통합된 후,³⁰ ‘실행’과 대립적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때 ‘실행’은 하나의 단어로 두드러져 제시되기보다는 맥락 속에서 풀어 설명되어 ‘언어/문자’와 대립된다. 앞서 ‘언어-행동’이 인간 평가의 일반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열체라면, ‘언어/문자-(실행)’의 계열체는 주로 임금의 정책 실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언어/문자-(실행)’의 계열체는 조정의 공론 속에서 말이나 문서로 거론될 뿐 실제로 실천되지 않는 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종종 등장한다.

28 영조 60권, 20년(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9월 2일(병자) 2번째 기사 대신과 찬집청의 당상관들을 인견하고 당파, 박성원 등에 대해 논의하다.

29 그 차림새며 덕스런 용모며 행동이며 언어 등은 보는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威儀也 德容也 行動也 言語也, 見者莫不悅服) 정조 54권, 24년(1800 경신 / 청 가경(嘉慶) 5년) 윤 4월 9일(신유) 2번째 기사 세자빈을 두 번째 간택하다.

30 언어/문자의 범주를 통합시켜 그 범주를 ‘언어’로만 지시한 경우가 있으나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아! 오늘날의 편당하는 풍습의 폐해는 진실로 나라를 망치게 될 화근(禍根)이기에 경계하셨음은 진실로 옳은 일이나, 제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전하께서 처분하시기를 함당하게 하시기에 달렸을 뿐이고 본래부터 언어(言語)만 가지고 교유(教誘)하여 제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嗚呼! 今日黨習之弊, 實爲亡國之禍根, 則戒之誠是也, 而其去之也, 則惟在殿下處分之得宜而已, 本非可以言語教誘而得去之者也) 영조 10권,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1월 28일(병진) 2번째 기사 도신에게 선포한 전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사어 환원진의 상소.

[18] 폐단의 근원이 이미 깊어지고 세속의 풍습이 고질화되었으므로 언어나 문자(文字)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然弊源已深, 俗習已痼, 非言語文字之所可移易)³¹

[19] 오직 ‘탕평(蕩平)’ 두 자로 일세(一世)를 농락하는 밑거리로 삼아서 한갓 언어 문자의 말단으로써 화합시키고 해소시키는 방도로 삼는다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惟以蕩平二字, 爲籠罩一世之資, 而徒以言語文字之末, 爲保合消瀆之道, 則不幾於緣木求魚乎)³²

[20] 봉당(朋黨)을 타파하려고 하나 능히 공심(公心)·정리(正理)로써 결단하지 못하여 항상 우물쭈물하고 그냥 덮어두는 의사가 있고,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려고 하나 능히 지성(至誠)·측달(側怛)로써 미루어 확충하지 못하고 한갓 언어·문자의 지엽적인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欲破朋黨, 則不能以公心正理裁之, 而常有依違籠罩之意, 欲恤民隱, 則不能以至誠惻怛推之, 而徒事言語文字之末)³³

[21] 상이 이르기를, “언어나 문자만 가지고는 또한 미혹된 것을 깨우쳐 주기에 부족하다. 오직 경들이 얼마나 잘 나의 뜻을 받들어 퍼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上曰 言語文字, 亦不足膺迷, 惟在卿等善爲對揚矣)³⁴

위에 열거된 자료들은 세속의 풍습을 변화시키거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언어-문자’로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사례들이다. 나아가 ‘언어/(문자)’와 대립되는 ‘실행’은 법령에 의한 실천 뿐만 아니라 임금이 도덕적인 행위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미치는 교화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 [22]는 임금이 검소함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31 영조 1권,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9월 24일(갑자) 7번째 기사 대사헌 이명언이 인재 등용과 봉비 타파, 군문 혁파 등에 관해 상소함.

32 영조 19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8월 7일(을유) 4번째 기사 탕평에 대한 정언 박필제의 상소문.

33 영조 30권,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7월 25일(병술) 5번째 기사 성찰과 극치에 성의를 다하라는 정언 남태량이 상소.

34 정조 42권, 19년(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2월 2일(갑인) 2번째 기사 재전에서 차대를 행하고, 정동준의 논죄에 대해 논의하다.

점을 강조한 후 제시된 것이다.

[22]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언어(言語)로만 가르치고 법령(法令)으로만 금단하려고 한다면, 비록 날마다 수천 장의 종이를 소비하여 가르치고 뒤따르며 채찍질을 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민정(民情)만 시끄럽게 만들고 폐해는 바로잡지 못할 것입니다.(不然而只欲以言語而教之, 法令而禁之, 雖日費千紙, 箠楚相續, 適所以撓民情, 而未足以救其弊也)³⁵

자료 [22]에서 ‘언어’는 법령과 짝을 이루어서 임금의 자발적인 실천과 대조됨으로써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언어’와 다양한 항목들을 대비하는 계열체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언어’의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의와 이어진다. ‘언어’상의 과실은 몸의 잘못, 즉 행동에 비교하자면 약소하다는 의식이나, ‘언어’가 아니라 의리와 도리를 살펴야 한다는 논의, ‘언어’가 아니라 몸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 등에서 언어의 위상은 축소된다.

[23] 이는 언어와 문자의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80세가 된 사람을 신문한다는 것은 형벌을 신중하게 살핀다는 뜻에 흠결이 있게 될 듯합니다.(此是言語文字之失, 以此訊問八十之人, 則恐欠審慎)³⁶

[24] 큰 신의는 마땅히 의리(義理)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구구한 언어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大信當觀義理之如何, 不在乎區區言語之末)³⁷

[25] 오직 우리 인묘(仁廟)께서는 질박함으로 폐단을 고치셨으니, 부문(浮文)과

35 정조 5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윤6월 23일(신사) 2번째 기사 대사성 유당이 인제 등용 민생 안정 등의 방도에 대해 상소를 올린다.

36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9월 11일(임인) 4번째 기사 죄인 조덕린을 잡아 추국하였는데 그의 공초에서 명백히 흥언의 근거가 없어 석방시키다.

37 영조 5권,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4월 2일(기사) 2번째 기사 민진원, 이휘건, 정호 등이 의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아뢰다.

언어(言語)를 숭상하지 않고 한결같이 질각(質戩)하고 진실(眞實)된 도리로(惟我仁廟, 以質而矯其弊, 不尙浮文, 不尙言語, 一以質戩眞實之道)³⁸

결국 실록에서 드러나는 ‘언어-문자-행동-법적 실행-임금의 시범’으로 확장되는 계열체의 구도 속에서 ‘언어’는 사람의 행동, 정책의 시행, 윤리적 시범 등과 대비되고 있다. 이는 ‘말’이 지닌 내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말’이 운용되는 외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 해당한다. 물론 이는 1차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자료가 조선의 정치, 사회의 현상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점에서 비롯할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문자나 글을 탐색한 자료에서도 구어인 ‘말’의 내부 체계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세에는 “‘언어’, 즉 ‘말’이 무엇인가?”라는 ‘언어’의 정체가 아니라 “‘언어’는 무엇을 하는가?”와 같은 ‘언어’의 역할에 보다 주목하였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3. ‘언어’에 대한 평가

일련의 계열체 속에서 다른 요소와 ‘언어’의 지위·역할 등이 비교될 때, 상대적으로 ‘언어’의 몫이 저평가되기만 하였다면 중세의 언어인식을 살피는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중세 문헌 속에서 중세 사람들이 ‘언어’의 역할을 무시하기만 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자료 [26]은 선조 대의 자료인데, 비록 맹자와 같은 성인의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나, ‘언어’를 가지고도 바른 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38 영조 36권,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2월 21일(무진) 2번째 기사 심수현이 정치의 요도(要道)에 대해 상소하다.

[26] 홍문관 교리(校理) 이이(李珥)가 경석(經席)에서 《맹자(孟子)》를 진강하면서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 “옛적에 맹자는 필부의 힘으로 다만 언어(言語)로써 사람들을 가르쳤는데도 오히려 사론(邪論)을 중식시키고 바른 도(道)를 넓히어 우(禹)임금과 같은 공을 이루었습니다.”(弘文館校理李珥, 於經席進講《孟子》, 臨文啓曰 … 昔者孟子以匹夫之力, 只以言語教人, 尙能熄邪熾廓正路, 以成如禹之功)³⁹

또한 ‘언어’에 대한 언급 속에서 문면으로 드러난 비판과는 다른 측면, 즉 중세 사회에서 ‘언어’가 차지했던 일정한 역할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료 [27]에서는 인재를 선발할 때, 언어가 민첩하고 용모가 가지런한 자만을 취하는 것을 비판적 논조로 거론하고 있다.

[27] 옛날에 이르기를, ‘말하는 것을 더듬거리는 것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사람을 취(取)하는데, 어찌 언어가 민첩하고 용모가 재장(齋莊) 한 자만을 쓰겠는가? (古云其言也似訥, 然則取人, 何以言語敏捷, 容貌齋莊爲哉)⁴⁰

문면 그대로의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언어가 민첩하고 용모가 가지런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 [27]은 중세 사회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언어’가 민첩하고 용모가 가지런한 자가 뽑히는 사례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비판이다. 즉, 이러한 비판이 가능한 바탕에는 인재 선발에서 민첩한 언어와 가지런한 용모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중세에 ‘언어’는 인간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작동하였기에 한 사람의 ‘언어’에 대한 평가 양상을 살필 수 있다.

39 선조 3권 2년 8월 16일 (정사) 2번째 기사 / 교리 이이가 《맹자》를 강하고 인심의 진작과 성학의 정진을 말하다.

40 성종 289권 25년 4월 29일 (정해) 2번째 기사 / 허침·대간들과 윤호의 관직 개정과 흥복사 불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 논쟁하다.

[28] 사람을 쓸 즈음에 이르러서도 언어가 민첩한 자가 반드시 모두 성실한 것이 아닌데도(至於用人之際, 言語之捷敏者, 未必皆誠實)⁴¹

[29] 용모의 예쁘고 누추함과 언어의 조용하고 우아함으로써 취(取)한다.(只以容貌之妍媸, 言語之閑都, 取之)⁴²

[30] 평생에 언어를 항상 조심하고 삼갔으니(平生常謹慎言語)⁴³

조용하고 우아하게 말을 하는 경우와 말을 삼가는 경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세에 ‘말을 삼가고 조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관점은 낯설지 않다. 좀 더 흥미로운 경우는 자료 [28]의 ‘언어가 민첩한 경우’이다. 자료 [28]에서는 ‘말이 민첩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 됨됨이가 성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을 취함으로써 말과 사람 됨됨이 사이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맥의 뉘앙스로 파악하건대, 말이 민첩한 경우는 때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니, 말이 민첩한 경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말을 둔하고 어눌하게 하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례(자료 [31])에서도 확인된다. 한 사람의 ‘언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살펴보자.

[31] 좌상은 언어가 둔하고 어눌하여 자기 뜻을 잘 밝히지 못합니다.(左相言語鈍訥, 不能達意也)⁴⁴

[32] 수령의 승진과 좌천은 마땅히 치적을 보아야 하며, 언어가 경박하고 지나

41 영조 16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10일(경신) 3번째 기사 부교리 박문수가 영남의 절수를 파할 것을 청하다.

42 영조 93권, 35년(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6월 4일(계축) 1번째 기사 정인 안검제가 별시 문과 일소 초시 시권의 내용에 대해 말하다.

43 영조 101권,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2월 2일(경인) 1번째 기사 이당을 풀어 주게 하고 김호회를 신문하다.

44 영조 40권, 11년(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6월 14일(임오) 1번째 기사 좌의정 서명균이 계속 사직 단자를 올리니, 우의정 김홍경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다.

치다 하여 문득 그를 죄줄 수는 없습니다.(守令陞黜, 當觀治績, 不可以言語薄過, 遽罪之也)⁴⁵

[33] 언어를 가지고 보면 상스럽고 속되며(以其言語也, 則俚談稗說)⁴⁶

[34] 언어는 비속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言語則率多俚談)⁴⁷

말에 대한 평가에서 말의 내용과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료 [31]에 드러나는 ‘둔하다’, ‘어눌하다’는 평가는 말의 표현에 대한 평가에 가깝고, 자료 [32], [33], [34]의 ‘경박하다’, ‘지나치다’, ‘상스럽다’, ‘비속하다’ 등은 말의 내용과 표현을 모두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언어’가 인간 평가의 근거로 다루어졌다면, 언어에 대한 교육이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영·정조 실록 속 ‘언어’에 대한 인식이 ‘언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생활 속 언어 규범에 대한 관심 등으로 드러날 때, 이러한 언어인식은 자연스럽게 규범서와 연결될 가능성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 속 〈언어〉편을 검토한다.

III. 《사소절》에 드러난 ‘언어’ 교육 인식

《사소절》에는 이덕무가 1775년(영조 51)에 쓴 서문이 포함되어 있기에

45 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8월 5일(무신) 4번째 기사 배천 군수 홍익필이 경연관을 기롱하였다고 하여 배천에 유배하다.

46 정조 54권, 24년(1800 경신 / 청 가경(嘉慶) 5년) 4월 15일(정유) 2번째 기사 재전에서 영의정 이병모를 차대하여 생원·진사시의 엄격한 시행 등을 의논하다.

47 정조 54권, 24년(1800 경신 / 청 가경(嘉慶) 5년) 4월 20일(임인) 1번째 기사 영의정 이병모, 좌의정 심환지를 차대하다.

영·정조 시기의 언어 규범과 언어교육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사소절’은 선비의 작은 예절이란 뜻이다. 이덕무는 서문에서 이 책의 저술 이유를 자신의 가정에서 지켜나갈 법칙으로 삼기 위함⁴⁸이라 밝히고 있는바, 이 책의 확대 독자는 사대부 남성과 여성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책에 제시된 예절은 하층 백성들에게로 확장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⁴⁹

《사소절》은 ‘선비의 예법’[士典] 5권, ‘부녀자의 예의’[婦儀] 2권, ‘아이의 규범’[童規] 1권으로 구성되었다. ‘선비의 예법’은 성행(性行), 언어(言語), 복식(服食), 동지(動止), 근신(謹慎), 교습(教習), 인륜(人倫), 교접(交接), 어하(御下), 사물(事物)의 10편으로, ‘부녀자의 예의’는 성행(性行), 언어(言語), 복식(服食), 동지(動止), 교육(教育), 인륜(人倫), 제사(祭祀), 사물(事物)의 8편으로, ‘아이의 규범’은 동지(動止), 교습(教習), 경장(敬長), 사물(事物)의 4편으로 서술되었다.

‘선비의 예법’ 〈언어〉 편은 38항목, ‘부녀자의 예의’ 〈언어〉 편은 15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소절》 〈언어〉 편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화법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말하고 듣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내용의 체계를 세우기 쉽지 않지만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말하고 듣기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원론적 입장을 담은 제언은 그리 많지 않다.

[35] 말을 할 때는 재잘거리서도 안 되고, 시끄럽게 해서도 안 되고, 산만하게 해서도 안 되고, 지체해서도 안 되고, 혼동시켜서도 안 되고, 중간에 끊어버려서

48 只自爲身家之法則而已.《士小節》序.

49 정수복은 현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유학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면서, 성리학이 상층의 이념에서 그치지 않고, 하층 백성들의 생활 습속으로 자리 잡아 “유교적 규범이 일상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Confucian normative society)”(2007: 247)가 된 시기를 18세기로 파악한다.

도 안 되고, 저속하고 잔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납고 조금하게 해서도 안 된다.⁵⁰

[36]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위엄을 상하고 정성을 감소시키며, 기운을 해치고 일을 무너뜨린다.⁵¹

[37] 대체로 언어는 무엇보다도 꾸며서 하지 말 것이다. 만약 글을 지을 때의 머릿글과 같이 한다면 남들로 하여금 듣기 싫게 만들 것이다. 말이란 정결하고 자상하고도 간결함을 귀히 여기는 것이니, 마땅히 번거롭고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피할 것이다.⁵²

이상의 내용은 낯설지 않다. 말에 대한 중세의 원론적 입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말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말하고 듣는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대비된다. 즉, 구체적 상황 속 말하기와 듣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말을 하고 들어야 하는 언어 상황으로 전제되어 있다. 목적이 생략된 채, 말하고 듣는 방법이 강조되어 구체적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예컨대 말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청중 중 특히 노비에게 명령을 하는 경우를 특화하여 말의 어조나 형식을 제시하고,⁵³ 노비를 통해 남에게 말을 전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번거롭고 자세

50 言語 不可呢喃 不可嘲啾 不可散漫 不可遲滯 不可繇纏 不可絕落 不可低殘 不可暴急.《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1 多言者 傷威損誠 害氣壞事.《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2 凡言語 勿先作假辭 如作文冒頭然 使人厭聽 語貴精詳簡 當忌煩復纖瑣.《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3 물 가져오라 불 가져오라고 종들을 부를 때는 소리를 가늘고 길게 하지 말고, 번거롭고 사납게 하지 말라.(呼水呼火呼婢僕聲 勿纖而長也 勿煩而暴也)《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하여서는 안 된다'⁵⁴와 같이 구체적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친척의 결혼 모임에 참석했을 때,⁵⁵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고 난 이후,⁵⁶ 여러 사람들과 중 일토록 함께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말을 하고 듣는 긍정적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체로 금지의 내용이 많다. 예컨대 입에 담아서 안 되는 말로 속된 말,⁵⁷ 저주의 말,⁵⁸ 익살스러운 말,⁵⁹ 음탕한 말, 나쁜 말,⁶⁰ 남의 외모에 관한 말 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들어서는 안 되는 말로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나는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⁶¹을 제시

54 중을 시켜 남에게 문의하게 할 때는 전하는 말이 번거롭고 자세하여서는 안 된다.(使奴婢問訊於人 不可語之煩細).《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5 친척의 결혼하는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신랑 신부의 우열을 망령되게 논하지 말 것이다.(參族人婚姻會 勿妄論媾婦優劣).《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6 아들이나 딸이 이미 혼인을 하였으면, 절대로 지난날의 신랑이나 신부될 사람에게 대하여 의논하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 것이다.(子女既成婚姻 切勿言前日嘗與擬議媾婦之人).《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7 속된 말이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선비의 행실은 그 즉시 땅에 떨어지게 된다.(俚俗之言 一出口 士行 卽時墜地).《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8 한 가지 뜻과 같이 안 되는 일로 인하여 몹시 성내고 불평을 하며, 문득 하는 말 중에 “나도 마땅히 죽어야 하고 남도 죽어야 한다”든지 “하늘과 땅이 무너져 버려라”라든지 “집이고 나라고 망해 버려라”라든지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어라” 하는 따위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不可因一不如意事 激怒不平 輒出了語 如我當死 人可殺 天地崩坼 家國敗亡 流離乞丐之類).《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59 말마다 익살스러우면 마음이 방일하여지고, 일하는 일이 다 진실성이 없어서, 남들도 역시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言言諧嘲 心則放 而事皆無實 人亦狎 而侮之也).《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60 입으로 여러 가지 썩은 냄새가 나는 일을 말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매우 떼떽하지 못한 것으로 음탕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口中不可動言 諸般腐惡之臭 此言甚不典 與談淫媾之事同焉).《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61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난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조금씩 뒤로 물러날 것이다.(聞淫媾 悖亂 誕妄 譏訕 機詐 峭刻 誇張 怨恨之言 切不可酬答 宜逡巡而退).《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함으로써 나쁜 말은 말하지도 듣지도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지의 방식은 ‘부녀자의 예의’에서 더욱 강조되어 ‘부녀자의 예의’ 〈언어〉편의 15항목은 모두 금지 혹은 경계의 내용이다.

[38] 많이 꾸짖고 자주 책망하며 잔말을 번거롭게 반복하면, 분부하는 명령이 잘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비복들은 떠나가고 배반하게 된다.⁶²

[39] 새로 결혼한 부인은 남편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친정에 전하여 이야기 하여서는 안 된다.⁶³

[40] 과부와 처녀가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 참여하여 말을 마구 하거나 함부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부녀자의 정숙한 행실이 아니다.⁶⁴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혼합된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금지 사항은 상대방 청자 혹은 다른 화자를 배려하는 말하기와 듣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야기의 화제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41]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옛날 일이나 신기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여러 사람에게 그 대략을 들어, “아무 일은 이리이러한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소, 못 들었소?” 하고 물어 보아서, 만약 남들이 이미 들었다고 하면 다만 그 요점만 들어서 그 다르고 같은 점을 시험할 따름이지, 거듭 그 시중을 말하여 지루하게 경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⁶⁵

[42] 남이 만약 옛날의 일이나 특별히 신기한 이야기를 말할 때, 내가 이미 들었

62 繁詈數責 絮言煩復 教令不行 離畔婢僕. 《士小節》卷之六 婦儀 言語.

63 新婚婦不可傳說 夫家細瑣之事於私家. 《士小節》卷之六 婦儀 言語.

64 嫠婦室女 參坐稠人 肆言放笑 非婦貞也. 《士小節》卷之六 婦儀 言語.

65 與衆人坐 欲言故事 或異聞 必拈大略 先向人曰 某事云云 諸君聞之否 人若已聞 只舉其要語 驗其異同而已 不可重言其首尾 以犯支離之戒. 《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던 말이라고 해도 저편이 바야흐로 열을 올려 말하면 마땅히 끝날 때까지 자세
히 들을 것이지, 도중에서 “그 일은 이러한 것일세. 나는 벌써 자세히 알고 있네.
자네는 뒤에 들은 것이니 거듭 말할 것 없네.”라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⁶⁶

‘옛날 일’이나 ‘신기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화제
이다. 그 경우 자신이 화자가 되었을 때는 청자들의 상황과 조건을 먼저 파
악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반면, 자신이 청자가 되었을 때에는 설령 그 이야기
를 알고 있을지라도 이야기에 열중한 화자의 말을 지나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화자일 경우에는 청자를, 청자일 경우에는 화자의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화자일 때와 청자일 때 요구되는 내용이 다소 어
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화자일 때는 청자를, 청자일 때는 화자
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핀 《사소절》〈언어〉편의 내용은 말을 통한 의사소통 상황
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예절로 집약되는데, 이는 중세 사회의 사대
부 계급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로 ‘말’에 주목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세 사대부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말하고
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내느냐와 같은 표현론적 문제가 아니었
다. 이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중세
사대부가 ‘언어’에 대해 가졌던 언어인식의 핵심적 측면이며, 이로 인해 중세
의 ‘언어’교육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소용되는 ‘말’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
였던 것이다.

이것은 《사소절》에서 ‘언어’의 문제를 ‘선비의 예법’[士典], ‘부녀자의 예
의’[婦儀]에서만 다룰 뿐 아이의 규범[童規]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유 중 일
부를 짐작하게 한다. 《사소절》의 〈언어〉편에서 제시된 ‘말을 하고 듣는 규

66 人若言故事異聞 我雖已聞 彼方劇言 當詳聽其竟也 不可徑說中間曰 此事如此 我已詳知 君
則後聞 莫須疊言也。《士小節》卷之一 士典 言語。

범'은 가족을 넘어서서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에서 요구된 생활 예절의 차원이 많았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집안에 사위나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 비복에게 명령할 때 등 가족 단위를 넘어선 인간관계 속에서 상황에 적합한, 대화 상대자를 배려한 '언어' 활동은 성인들의 중요한 교육 요소로 간주되던 것이다. 이처럼 중세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은 '언어 체계'가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언어의 사용',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언어 규범'으로 향하고 있었다.

IV. 결론

본 논문은 중세의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중세 사회 속 '언어인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대의 언어교육에서 제안된 '언어인식 [Language Awareness]' 개념은 모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교육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무엇보다도 해당 언어의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구어, 한문, 언문의 삼중 체계를 전제로 한 중세의 문헌에서 언어인식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중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을 자료로 삼아 '언어'라는 표지가 드러나는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여 중세 문헌 속에서 단어 '언어'가 지시했던 의미를 재구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및 감수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조선 후기 규범서인 《사소절》 속 언어 교육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언어'로 지시된 대상은 1차적으로 '말', 즉 구어(口語)를 가리킨다. 실록 내에서는 '언어'와 특정 단어가 결합하여 일정한 의미 계열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언어-문자-행동-법적 실행-임금의 시범'으로 확장되는 계열체의 구도 속에서 '언어'는 사람의 행동, 정책의 시행, 윤리

적 시범 등과 대비되고 있다. 이는 ‘말’이 지닌 내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말’이 운용되는 외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중세에는 “‘언어’, 즉 ‘말’이 무엇인가?”라는 ‘언어’의 정체가 아니라 “‘언어’는 무엇을 하는가?”와 같은 ‘언어’의 역할에 보다 주목하였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영·정조 실록 속 ‘언어’에 대한 인식이 ‘언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생활 속 언어 규범에 대한 관심 등으로 드러날 때, 이러한 언어인식은 자연스럽게 규범서와 연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 속 〈언어〉 편을 검토하였다. 《사소절》〈언어〉 편에서는 다음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말하고 듣기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고 듣는 목적에 대한 언급은 생략된 채, 말하고 듣는 방법이 구체적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말을 하고 듣는 긍정적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체로 금지의 내용이 많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혼합된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금지 사항은 상대방 청자 혹은 다른 화자를 배려하는 말하기와 듣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소절》〈언어〉 편の内容은 말을 통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예절로 집약되는데, 이는 중세 사회의 사대부 계급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로 ‘말’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세 사대부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내느냐와 같은 표현론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중세 사대부가 ‘언어’에 대해 가졌던 언어인식의 핵심적 측면이며, 이로 인해 중세의 ‘언어’ 교육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소용되는 ‘말’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즉, 중세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은 ‘언어 체계’가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언

어의 사용,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언어 규범'으로 향하고 있었다.

실록 속 '언어'가 '말'을 지시하기에 중세 문헌에 드러난 단어 '언어'에 주목하여 중세의 언어인식을 추출하고자 한 본 논문은 중세의 '말'에 대한 인식, 말에 대한 감수성, 구어 교육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중세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말이 담당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관심은 근대계몽기 들어 서양에서 도입된 에티켓과 결합하며 내용이 강화되거나 변용⁶⁷ 된다.

* 본 논문은 2013. 2. 28 .투고되었으며, 2013.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3.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67 근대계몽기 구어 교육에 대해서는 줄고(2003: 512-517) 참조.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 강혜선(2012), 「정조의 문체반정과 경화문화」, 『한국실학학회』 23.
- 권보드래(2000),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 김성수(2009), 「《논어》의 언어인식과 화법교육적 의미」,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은성(2005), 「외국의 국어지식 교육 쇄신 동향」, 『선청어문』 33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 남가영(2003), 『메타언어적 활동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류점숙(1999), 「전통사회 유가 아동의 언어교육」, 『퇴계학보』 104집 1호, 퇴계학연구원.
- 박혜진(2006), 「정조대 문체반정의 지향과 의의」,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 윤재민(2002), 「문체반정의 재해석」, 『고전문학연구』 21, 한국고전문학회.
- 이경하(2003),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이연숙 지음, 고영진·임경화 옮김(2006),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인식』, 소명출판.
- 이을환(1975), 「논어의 언어의식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논문집』 15, 숙명여자대학교.
- 임영관(1993), 「논어에 나타난 언어의식 연구」, 『홍대논총』 25, 홍익대학교.
-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 조희정(2003), 「근대계몽기 어문 교과서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집, 국어교육학회.
- _____(2003), 「1910년대 국어(조선어)교육의 식민지적 근대성」, 『국어교육학연구』 18집, 국어교육학회.
- 허남욱(1995), 「조선 후기의 문체 및 문체반정에 대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5, 성신한문학회.
- Fairclough, N.(ed.)(1992), *Critical Language Awareness*, London: Longman.

중세 문헌에 드러난 언어인식과 국어교육의 전사(前史)

조희정

본 논문은 중세의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중세 사회 속 ‘언어인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중 영조 실록과 정조 실록을 자료로 삼아 ‘언어’라는 표지가 드러나는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여 중세 문헌 속에서 단어 ‘언어’가 지시했던 의미망을 재구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및 감수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조선 후기 규범서인 《사소절》 속 ‘언어’ 교육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언어’로 지시된 대상은 1차적으로 ‘말’, 즉 구어(口語)를 가리킨다. 실록 내에서는 ‘언어’와 자주 결합되는 단어들이 있어 일정한 의미 계열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언어-문자-행동-법적 실행-임금의 시범’으로 확장되는 계열체의 구도를 갖춤으로써 ‘언어’는 사람의 행동, 정책의 시행, 윤리적 시범 등과 대비되고 있다. 이는 ‘말’이 지닌 내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말’이 운용되는 외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중세에는 “‘언어’, 즉 ‘말’이 무엇인가?”라는 ‘언어’의 정체가 아니라 “‘언어’는 무엇을 하는가?”와 같은 ‘언어’의 역할에 보다 주목하였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영·정조 실록 속 ‘언어’에 대한 인식이 ‘언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생활 속 언어 규범에 대한 관심 등으로 드러날 때, 이러한 언어인식은 자연스럽게 규범서와 연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 속 〈언어〉 편을 검토하였다. 《사소절》

〈언어〉 편에서는 다음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말하고 듣기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원론적 입장을 담은 제언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상황 속 말하기와 듣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말을 하고 들어야 하는 언어 상황으로 전제되어 있다. 말하고 듣는 목적은 생략된 채 말하고 듣는 방법이 구체적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말을 하고 듣는 긍정적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체로 금지의 내용이 많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혼합된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금지 사항은 상대방 청자 혹은 다른 화자를 배려하는 말하기와 듣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소절》 〈언어〉 편の内容은 말을 통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예절로 집약되는데, 이는 중세 사회의 사대부 계급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로 ‘말’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중세 사대부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내느냐와 같은 표현론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중세 사대부가 ‘언어’에 대해 가졌던 언어인식의 핵심적 측면이며, 이로 인해 중세의 ‘언어’ 교육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소용되는 ‘말’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중세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은 ‘언어 체계’가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언어의 사용’,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언어 규범’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핵심어 언어인식, 조선왕조실록, 말(구어), 사소절, 사대부, 언어규범, 언어예절

ABSTRACT

The Study on Language Awareness in Korean documents of the Middle Ages

Cho, Hee-jung

This thesis aimed to research 'Language Awareness' in Korean documents of the middle ages. For this purpose, the thesis found texts including the word '言語' i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vestigated the meaning of the word '言語' and contexts used the word. The word indicated the spoken language. The word that was united new words, for example the written language, behavior, practice and so on, expanded limits of its meaning. This shows that the interest in the middle ages would be not 'what the language is' but 'what the language do'.

This language awareness was connected with language norms and language manners. So this thesis analyzed a party of <言語>《사소절(士小節)》, which was a book about language norms and language manners in the later eighteenth century. The contents of a party of <言語>《사소절(士小節)》was language manners in the situation of communication by a spoken language, especially how to be considerate of others.. The result shows that a high official class in the middle ages thought that words was very important for the good relations with others. So language awareness in the middle ages was how to use words properly in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and to keep language norms and language manners.

KEYWORDS Language Awarenes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poken language, Sasojul[사소절], a high official class, Language norms Language manners.